

노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2017.12.28.

국토교통부
2018.2.8.

구로구청
2018.2.19.



오류동 복합개발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 구로구청(2018) "구로구·정부·SH 원원원 아이디어 전국 1호!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청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2월 13일자 보도자료.

앞으로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일부를 임대주택과 수익시설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각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1,640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77곳을 후보지로 접수받았고, 그중 임대주택 수요와 사업성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2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해 선정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한 곳은 서울시 오류1동 주민센터이다. 구로구,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힘을 모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낡은 주민센터를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이다.

1981년 건축된 옛 오류1동 주민센터는 노후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요구가 많았지만, 구청에서는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구청을 도왔고, SH공사가 건축을 맡아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사업으로 구로구청은 큰 규모의 사업 예산이 드는 공공청사 신축을 사업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SH공사는 토지 매입 부담을 줄여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낙후된 공공청사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일석이조의 도시재생 효과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대상지

구분		시설명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
	중랑구	구민회관, 면목4동 주민센터
	구로구	수궁동 주민센터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성대 거주자우선주차장, 대방생태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금천구	금천(가산동)공영주차장
경기	수원	매산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남양주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남양주아트센터, 금곡지구대
	광명	철산동 복합서비스센터
	안양	공영주차장(수암천복개주차장),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산	서구	서구청
대구	북구	산격3동주민센터
충남	천안	두정문화회관
	예산	(구)예산군청사
세종	세종	금남면사무소
전남	여수	(구)중부보건지소
제주	제주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자료: 국토교통부(2017), "전국 노후 청사 23곳 재탄생,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12월 28일자 보도자료.